

아프리카 지역의 나사업

(「이디오피아」의 나사업을 중심으로)



가톨릭의과대학 만성병연구소

소장 최시통

「노르웨이」의 「베르겐」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나학회에 참석하였던 길에 「이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 “아디스”로 약기함)를 수일간 방문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나병의 유병율이 대단히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집트」(지금은 이집트 아랍공화국이라고 함)는 인도, 중국과 더불어 나병 발생지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디오피아」를 방문한 것은 그곳 「아디스」근교에 ALERT(All Africa Leprosy and Rehabilitation Training Centre)라고 하는 범아프리카 나병훈련원과 나균을 발견한 「한센」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나병연구소(Armauer Hansen Research Institute)가 있어서 견학할겸 겸은 대륙의 일각이라도 구경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그것도 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한개의 조그마한 나라의 시찰로서 아프리카 전체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9월 3일 밤 11시경에 「로마」를 떠난 「아디스」행 항공기는 도중 「수-단」의 「카르툼」 공항에 잠시 착륙하고 다음날 아침 7시경 「아디스」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 김포공항의 반 정도의 규모인 이곳 국제공항에는 승객도 그리 많지 않았으며 마침비가 내리고 있어서인지 기우는 생각과는 달리 비교적 서늘하였다.

입국 절차도 간단히 끝나고 돈을 바꾸는데 미

화 일불당 이나라 돈은 2분이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서독의 마르크화보다도 환율이 높았다.

택시로 「아디스」시가지지를 지나 ALERT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되었는데 눈에 띄는것은 더러운 흰옷을 뒤집어 쓴 검은 무리들이었으며 초라한 모습으로 비를 맞으며 맨발로 흙탕길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볼때 유럽의 여러 도시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또한 가난에 허덕이는 이 나라의 일면을 엿보는것 같았다.

이러한 그들이 한국 동란때 참전국의 하나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자실에 세삼 놀랐으며 측은하고 친근한 생각마저 든다.

「이디오피아」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Haile Selassie 일세(1916년에 섭정의 지위에 오른 후 1930년에는 황제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치하에 있는 인구 25,000,000명을 가진 왕국이며 3000년 동안이나 독립을 유지하여 온 아프리카의 2개 나라중의 하나로서 유구한 그들의 역사를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자존심에서인지 인도의 「봄베이」나 「칼컷타」에서 외국인만 보면 동양을 칭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행정구역은 1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Amhara, Tigre, Gurage 등 여러 종족이 있어 지방어나 방언도 많으며 영어를 제 2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원래 「아디스」라는 이름은 “새로운것” 그리고 「아바바」는 “꽃”을 의미하며 1~2월에는 「아디스」일대가 지명 그대로 꽃 동산을 이룩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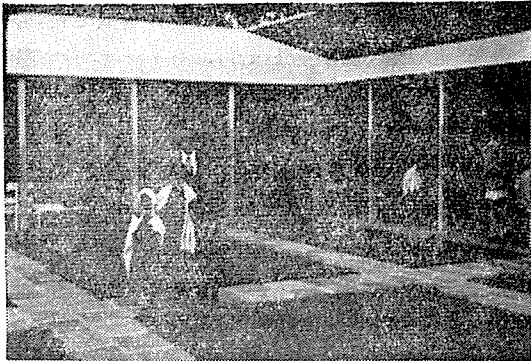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아디스」는 공기 맑고 서늘하여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같았으며 지금은(6월~9월) 큰 비가 1~2차례씩 내리고 있었다.

이곳에는 유엔 경제위원회 아프리카 지역 본부와 아프리카 통일 조직체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는 서구화되어 특히 시내 중심가에 있는 궁전은 유럽의 궁전들을 방불케할 정도로 거대하고 아름다웠다.

지방민의 대부분은 농업과 목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히 원시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하며 직접 손으로 식사하는 풍습은 인도 사람들과 비슷하였다.

돈의 단위가 높은 관계로 시골에서는 지폐가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빈부의 차가 심한 것 같이 생각되었다.

듣건데 「아디스」에서 500km 떨어진 북쪽은 기후가 몹새 더웁고 7년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많은 사람과 동물이 죽어가고 있다니 손을 댈수 없는 참상인지는 몰라도 UN이나 FAO의 존재가 의심되었다.



ALERT 나병원에서

ALERT의 나사업

현재 ALERT가 전개하고 있는 나사업에는 요원훈련, 나환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 「쑤아」지방(Shoa Province)의 제가 나환자 진료 그리고 나병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연구사업등이 포함되어 있다.

1. 요원 훈련사업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오는 의사들을 위한 대학원 과정과 세미나가 있으며 이때에는 저명한 나학자들을 초빙하여 그 과정을 담당케 한다.

이외에 이곳 스태프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훈련과정에는 의과대학생을 위한 2주간의 훈련, 나병관리요원을 위한 3주에서 3개월에 이르는 훈련계획등이 있으며 나병 전반에 걸쳐 실지교육을 한다.

2. 나환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사업

200병상의 나병원에는 성형외과 수술실, 물리치료실 및 임상검사실등 의료시설을 비롯하여 의지부, 직업보도부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또한 의료 사회사업가에 의해 환자의 환경 조사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외래환자는 신환자(일반 피부병 환자도 간혹 있음)만도 매일 수십명에 이르고 있었으며 연소자들의 발병이 많은듯 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매 물은 옷 차림의 초라한 모습들이었으며 옷자락에는 빈대가 기어 다니는 환자도 있었다.

맨발로 걸어 다니므로 발바닥의 나성깨양같은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었으나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니 코끼리 발바닥처럼 탄탄하기 때문인가 보다.

실은 건강한 「이디오피아」 사람에서도 코끼리 발과 흡사한 모양을 보았으므로 “필라리아”증(filariasis)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필라리아”증은 아니라고 하며 그 원인은 잘 모르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특수하게 제조된 구두를 착용케 하는데 퇴원하면 신발은 집어 던지고 다시 맨발로 고향에 돌아 간다고 한다.

이러한 신발을 신고 다니면 나환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고향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고 하니 나병에 대한 편견이 또한 대단한 모양이다.

또 하나의 사회문제는 나환자의 도시 집중이다. ALERT로 모여드는 환자중에는 시골 환자도

많으며 그들은 훌륭한 의료시설을 갖춘 이곳에 일단 입원되면 퇴원하기를 싫어하며 또한 편리한 도시생활에 매력을 느끼고 고향에 돌아갈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도시를 부랑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이곳 의료 사회사업가들은 그들을 타일러 다시 고향으로 되돌려보내는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었다.

이곳 입원환자는 의수족까지도 일절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단기 입원만이 허락되었다. (우리나라 의료선교단에서 파견된 송태근박사가 이곳에서 봉사하였던 일이 있었음)

3. 「쏘아」지방(Shoa Province)의 재가 나환자 진료사업

「아디스」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쏘아」지방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디오피아」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다.

85,000sq. km면적에 농촌 인구가 약 4,000,000명, 도시인구가 1,000,000명이며 70개의 진료소가 있어 9,000여명의 재가 나환자를 돌 보고 있다.

각 진료소마다 ALERT에서 훈련받은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나환자의 발견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큰 비가 내리는 계절에는 도로가 차단되어 환자의 재가치료는 불가능해지며 나이동 진료반의 설치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지방의 나환자 추산수는 20,000~40,000명으로 보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 되었으며 실태 파악이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 있었다.

1963년 WHO의 발표에 의하면 「이디오피아」의 나환자 수는 20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유병율은 인구 1,000명당 9.52이며 등록환자는 42,780명으로 그중 20,000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4. 나병연구소(Armauer Hansen Research Institute)

「노르웨이」학자인 Göran Kronvall 박사가 소장인 이 연구소는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파견된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영국의 Oxford Cambridge 대학에서도 연구생을 파견하여 나병을 공동 연구케 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학계의 관심사인 나병의 면역학 과 생화학분야에 있어서 특히 세포면역학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아디스」에는 의과대학이 하나 있으며 매년 40명의 의사가 배출되지만 아직 나사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으며 그들은 질적으로도 외국 의사들에게 훨씬 뒤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일 하는 「이디오피아」 의사의 봉급은 미화로 월 400~900불로 우리나라 관리의사들 봉급수준보다 높았으며 나병 관리요원은 월 30~45불이라고 한다.

아프리카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인구 1,000명당 나병의 유병율은 20~50이라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며 「중앙 아프리카」는 93.4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이디오피아」의 ALERT의 활동은 검은 대륙의 등불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남 아프리카」(인종 차별이 심한 나라임)에서는 환자의 강제 수용이 강제되고 「콩고」지방에서는 저체 주민에 대한 강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 빈곤과 의료인의 부족으로 나사업은 외국 원조기부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인것 같다.

끝으로 ALERT 책임자인 Ross 박사의 말을 빌리면 나사업은 밀고(push) 당기고(pull) 하면서 기다리고 생각하며 또 생각하고 찾아 내는 것이라고 한다.

문화시설도 없는 외로운 아프리카의 벽지에서 나환자들의 벗이 되어 그들을 어루마리며 연구하고 생활하는 그의 생활 신조인것 같이 생각되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디오피아」의 나사업은 암담하였으며 의료인, 특히 그 나라 의사들의 참여가 없는 나사업의 앞날은 한층 더 흐리게만 하고 있는것 같이 느껴진 것은 나의 여로의 피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